

##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이 논문은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전생애동안 계속되고 그것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다는 Bowlby의 주장을 지지하는 최근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그에 덧붙여 안정되지 못한 애착이 정신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애착의 질적 특성을 통하여 세대간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논문들도 개관 속에 함께 포함되었다. 이 개관을 통하여 애착은 발달심리학에서는 물론 최근의 발달정신병리학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고 발달적 조망에서 정신장애에 접근하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었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질적 특성이 세대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는가는 애착연구를 시작한 Bowlby(1969)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Bowlby의 애착이론은 일차적 양육자로 부터 분리된 영아와 어린 아동에 대한 관찰로 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는 애착이론의 틀 내에서 분리와 상실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애착 행동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을 특징짓는 요인이라고 가정한 Bowlby는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전생애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질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양육방식이 결정되며, 결정된 양육방식에 의해 아동의 애착양식이 결정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애착이 대물림된다고 주장하였다.

후속된 연구들은 개인의 전생애동안 부모는 물론 특정인에 대한 애착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어머니와 그들 영아의 애착양식이 유의하게 일치함으로써(Ward & Carlson, 1995; Benoit & Parker, 1994; Fonagy, Steele & Steele, 1991) 애착이 세대간에 걸쳐 전달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그에 덧붙여 애착의 세대간 전달은 병리적 발달에서도 그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Rosenstein & Horowitz, 1996) 전생애동안의 애착의 계속과 대물림에 대한 Bowlby의 주장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입증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탄력요인에 관심을 갖는 최근의 발달정신병리학적 조망에서는 애착의 질적 특성을 개인의 발달적 일탈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애착의 질적 특성을 통하여 병리적 발달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 애착의 정의와 질적 특성

Bowlby와 Ainsworth로 대표되는 애착연구의 초기에는 애착(attachment)이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관계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전생애를 통하여 계속되고(Ainsworth, 1989) 성장과정을 통하여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됨에 따라(Kirkpatrick & Davis, 1994; Feene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이제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생애를 통하여 계속될 수 있는 이원적인 애정적 유대관계로 정의된다.

Ainsworth(1989)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애착관계일 수 있기 위해서는 애착대상으로 부터 안정감과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 가까움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착이나 애착관계는 지속적이고 보통 상황적 여건과는 무관하나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유기체의 성숙에 따라 그리고 활성화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령증가와 함께 애착행동의 활성화는 현저히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애착대상에게 접근하려는 개인의 경향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성장한 이후에도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면 애착대상은 "더 강하고 더 많은 지혜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Bowlby, 1980).

지구상의 모든 영아들은 누군가에게 애착한다. 보통 생후 6, 7개월경에 형성되는 최초의 애착은 주된 양육자를 포함하여 단지 소수의 개인에게 대해서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특정한 대상에게 애착이 형성되면 영아들은 애착인물을 환경탐색을 위한 안전기지나 안식처로 사용한다(Ainsworth, 1967). 애착인물의 선택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하고 또한 애착인물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행동체제에서의 질적 변화가 초래된다. 애착발달에 관한 규범적 설명을 제시하고 애착양식에서의

개인차를 연구한 Ainsworth 등(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은 그들이 고안한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절차를 사용하여 세가지 유형의 애착양식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생후 첫 1년동안 영아의 신호와 요구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성과 민감성에 따라 질적으로 상이한 유형의 애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insworth 등에 의하면, 안정된(secure)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낯선 상황에서의 짧은 분리 후에 어머니가 되돌아오면 반가워하고 쉽게 안정을 되찾으며 재빨리 탐색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회피적(avoidant)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짧은 분리기간동안 장난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울지도 못하였으며 어머니를 다시 만나도 회피하거나 무시하기까지 하였다. 대조적으로 불안-양가적(anxious/ambivalent) 애착을 지니게 된 영아들은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면 심하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수동적이었으며 안정되게 놀이나 탐색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양육자에게 지나치게 몰두되어 있어 무조건 보살핌을 받으려고 하거나 관심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요구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Ainsworth 등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3범주의 애착을 가정하였으나 Main과 Solomon(1990)은 세가지 애착양식 어느 것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제4의 애착양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4범주의 애착양식을 제안하였다. Main과 Solomon에 의하면, 불안정한-혼란된(insecure-disorganized)으로 명명되는 제4의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영아들은 다시 만난 부모를 보고도 모든 동작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하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도망쳐서 벽에 머리를 기대는 등 일관성없고 체계화되지 못한, 혼란된 행동패턴을 나타내었다.

혼란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 중에는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동들이 많으며(Cicchetti, Toth & Lynch, 1995) 혼란된 애착양식과 학교에서의 공격행동이나 파괴적 행동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와 함께 (Lyons-Ruth, 1996), 혼란된 애착양식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연령에서의 해리장애를 예언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Carlson, 1990). 다시 말하면 혼란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은 정신장애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것이다. Main(1996)은 정신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애착관련적 위험요인으로 ①생후 6개월부터 3년 사이의 애착형성의 실패, ②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형성, ③애착인물과의 분리나 영구적 상실, ④부모로 부터의 학대에 기인된 혼란된 애착양식의 형성, 그리고 ⑤부모가 지니고 있는 외상에 의해 대물림된 혼란된 애착양식의 형성 등을 제안하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질적 특성이 병리적 증상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애착모델과 대물림의 증거들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는 Bowlby가 제안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있다.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란, Main 등(Main, Kaplan & Cassidy, 1985)에 의하면,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획득하거나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아동이 양육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때의 정서적 경험을 기초로 자기와 애착인물 및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적 작동모델로 구조화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양육자와의 반복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고 형성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이후 애착체계의 활성화를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Bowlby, 1969). 즉 영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계속되고 그것은

후속적 관계형성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그것에 의해 영향받는 행동패턴은 성격의 중심적 구성요소를 이룰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영아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타인을 신뢰할 수 있고 도움을 주는 타인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 확신을 지니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와 사랑 혹은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에 바탕을 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한다. 그들은 성장한 이후에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 과도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양육자에게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들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가치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같은 부정적 신념에 기초된 내적 작동모델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들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성인의 애착양식을 평정하기 위하여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개발한 Main 등(1985)은 Ainsworth 등이 소위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이라는 실험실 절차에서 확인한 애착양식과 상응하는 세 개의 주된 범주(자율적-안정된, 거부적, 몰두된)와 한 개의 부가적 범주(미해결의-혼란된)를 성인들에서 발견함으로써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율적-안정적(autonomous-secure) 애착은 낯선 상황절차에서 확인된 영아의 안정된 애착양식과 일치하고 몰두된(preoccupied) 애착은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과 그리고 거부적(dismissing) 애착은 회피적 애착양식과 일치하며 미해결의-혼란된(unresolved-disorganized) 애착은 영아의 불안정한-혼란된 애착양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이 성인기에도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이다.

AAI는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면접 대상 성인

들이 경험한 아동초기의 애착과 관련된 자서전적 기억들을 인출하게 하고 현재의 조망에서 기억들을 평가하게 한다. AAI에 의해, 자율적-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어린 날의 경험이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인생초기의 애착관계와 그것의 영향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성있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들은 학대와 같은 불행한 경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학대한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율적-안정된 애착은 정상집단의 성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애착양식으로 임상적으로 괴로움이나 고통을 겪는 집단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Van IJzendoorn & Bakermans-Kranenburg, 1996). 또한 자율적-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자녀를 가질 확률이 높다 (Carlson, 1990).

물두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 성인들은 부모와의 애착경험에 관해 많은 갈등적 기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조직적이고 일관성있게 기술하지 못한다. 그들은 애착경험에 지극히 몰두되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모호하고 지극히 일관성없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향이 있다. Fonagy 등(1996)에 의하면, 이와같은 물두된 애착은 경계선적 성격으로 고통받는 개인들 사이에서 자주 발견되는 애착양식으로 불안-양가적 애착양식을 갖는 영아의 부모들인 경우가 많다.

또한 거부적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아동기의 애착관계에 관해 기억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삼고 애착관계를 이상화하거나 혹은 평가절하함으로써 애착경험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성인들이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 적대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Kobak & Sceery, 1988) 높은 수준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파괴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Speltz, Greenberg & DeKlyen, 1991). 부가적 분류로 확인된 성인애착의 미해결의-혼란된 양식은 외상적 경험에 관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특이한 생각이나 신념을 지니는 특

징이 있으며 임상적으로 고통받는 전집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Hesse, 1996). 미해결의-혼란된 애착은 영아의 혼란된 애착과 관련되어 있어 가장 병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애착양식 집단으로 분류된다.

Main과 그 동료들의 연구 외에도 애착의 발달적 계속성을 제시하는 결과들은 많이 있다. 비록 어떤 연구도 아동초기부터 성인기까지 종단적으로 애착의 질적 특성에서의 변화를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후속된 연구들은 애착의 계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증거로서 Sroufe(1983)는 영아기동안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또래들 사이에서 더 유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Main과 그 동료들(1985)도 생후 12개월에 낯선상황에서 측정된 애착양식과 6세에 측정된 애착양식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아동기는 물론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청년기 동안에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 예로서 부모와 동년배에 대한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형의 질문지 검사인 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개발한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들의 적응이나 안녕과 높은 상관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대학연령에서도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가족을 떠난 대학 1학년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연구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종단연구를 수행한 Kenny(1987)도 대학생들은 여전히 그들의 부모를 안전기지로 활용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부모의 도움을 구하며 6개월간의 시간경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평균 애착점수에서 변화가 없다고 제시하였다. McCormick과 Kennedy(1994)도 부모에 대한 애착의 계속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아동기동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현재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질문문항을 달리하여 측정한 결과, 한 번 형성된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된다는

Bowlby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간접적 증거이기는 하지만, 애착의 계속성은 대학생들은 물론 10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Paterson 등(Paterson, Field & Pryor, 1994)은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중요한 애착대상이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기 동안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장휘숙(1997)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고등학교 및 대학시기 동안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녀 모두 연령증가와 함께 친구에 대한 애착은 증가하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자아존중감과 학구적/직업적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청년기 동안에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또한 성인의 낭만적 사랑을 애착과정으로 설명한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의 애착양식을 네가지 범주로 설명한 Main 등(1985)과는 상이하게, 영아기에 양육자에 대해 형성한 애착양식이 성인기에도 그대로 계속된다고 가정하고 Ainsworth 등이 제안한 세가지 애착양식을 성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들은 세개의 애착양식 각각에 대해 단일문항의 질문을 구성하여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을 측정하고 이성애에 대한 사랑방식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성인들이 경험하는 낭만적 사랑은 그들이 아동기 동안 부모와 어떤 유형의 애착관계를 경험했느냐에 따라 다소 다르게 경험되는 애착과정이므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내적 작동모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결과 파트너에게 안정된, 회피적, 혹은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각기 그와 상응하는 애착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낭만적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Hazan과 Shaver의 연구결과는 Feeney와 Noller(1990) 및 Collins와 Read(1990)에서도 반복될 수 있었을 뿐아니라 개인의 애착양식은 데이트 파트너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Kirkpatrick & Davis, 1994; Simpson, 1990). 이와같은 연구결과들은 성인기의 낭만적 사랑에 애착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은 물론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제 애착은 더 이상 영아기에서의 단계특정적인 발달문제로 한정되지 않으며 그것은 전생애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기능하는 관계형성의 기본체제로 인식된다.

이와같이 한 번 형성된 애착이 전생애 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결과들은 애착의 질적 특성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이유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질적 특성은 자녀의 양육 방식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므로 자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애착 연구의 초기부터 애착의 질적 특성이 세대를 통하여 대물림된다는 것을 강조한 Bowlby(1969)는 아동기 동안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애정과 수용의 정도가 그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 영아를 돌볼 때 얼마나 감정이입적이고 인내심을 지닐 수 있는가를 결정함으로써 애착의 질적 특성은 세대간에 걸쳐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행동은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내적 작동모델에 의해 인도될 것이고 그것은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동안 두 사람의 관계의 질적 특성은 내면화되어 아동의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게 할 것이며 그것은 다시 관계 형성 경험에 대한 아동의 기대와 평가를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착이 대물림된다는 Bowlby의 주장은 최근의 연구들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되는 추세에 있다. 그 증거로서 영국의 임신한 어머니들에게 성인애착면접을 실시하여 애착의 질적 특성을

측정한 후 생후 12개월된 그들의 영아를 대상으로 낯선 상황에서의 애착양식을 측정한다. Fonagy 등(1991)은 애착양식을 안정한 대 불안정한으로 이분하였을 때, 어머니와 영아가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의 일치율이 75%에 이른다고 밝혔다. Fonagy 등의 연구 이전에도 어머니의 애착양식과 영아의 애착양식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이미 여러 편 보고된 바 있다. 그 예로서 미국의 Main과 동료들은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영아의 부모들은 AAI에서 자율적-안정된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독일의 Grossman 등(Grossman, Fremmer-Bombik, Rudolph & Grossman, 1988)은 애착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어린 영아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 때, Fonagy 등의 연구는 애착이 대물림된다는 Bowlby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애착의 대물림은 Ward와 Carlson(1995)에 의해 경제적으로 가난한 소수 민족집단 출신의 청소년 어머니들에서도 확인됨으로써 연구대상자들의 계층과 상관없이 애착의 세대간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임신한 10대 청소년 어머니들에게 AAI를 실시하고 그들이 출산한 영아가 15개월이 되었을 때 낯선 상황절차를 사용하여 영아의 애착양식을 측정하였다. 성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임신 중에 자율적-안정된으로 분류된 청소년 어머니들은 안정되지 못한 애착양식을 갖는 집단의 청소년 어머니들보다 그들의 영아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동시에 자율적-안정된 집단에 포함되는 청소년 어머니들의 78%가 낯선 상황절차에서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영아를 갖는 경향을 나타내어, 애착이 대물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Fonagy 등과 Ward와 Carlson의 연구를 확대하여, Benoit와 Parker(1994)는 애착이 3세대에 걸쳐 대물림될 수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영아와 어머니 및 어머니의 어머니(영아의 외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수행하였

다. 어머니가 임신중일 때 AAI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을 측정하고 영아가 생후 12개월이 되었을 때 낯선 상황절차를 사용하여 영아의 애착양식을 측정하는 동시에 AAI로써 어머니의 애착양식을 다시 한 번 더 측정함으로써 애착의 계속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또한 외할머니의 애착양식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AAI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연구결과 임신동안 측정된 어머니의 AAI 분류는 분만후 11개월까지, 애착의 3범주(자율적-안정된, 거부적 그리고 몰두된)에서는 90% 그리고 4범주(자율적-안정된, 거부적, 몰두된 그리고 미해결의-혼란된)에서는 77%가 일치하여, 약 1년동안의 단기간이긴 하지만, 애착의 질적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애착의 3범주가 사용되었을 때 임신동안 이루어진 어머니의 AAI 분류는 영아의 낯선 상황분류의 82%를 예언할 수 있었고 애착의 4범주가 사용되었을 때는 68%를 예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AAI 분류는 애착의 3범주를 사용했을 때 할머니의 AAI 분류의 75%를 그리고 4범주를 사용했을 때는 49%를 예언할 수 있었고 할머니-어머니-영아의 3세대에서의 애착양식의 일치 정도는 애착의 4범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3범주가 사용되었을 때는 65%에 이르러, 세대간에 걸쳐 애착의 질적패턴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비록 그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왜 일부의 어머니들의 AAI 분류가 약 1년의 기간에 걸쳐 변화하였는가를 설명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안정된 할머니들보다 안정된 어머니들이 더 많고 안정된 어머니들보다 안정된 영아가 더 많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경과에 따라 안정된 애착양식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Kobak & Hazan, 1991; Hazan & Hutt, 1990)에도 불구하고, 약 1년의 기간동안 안정되지 못한 내적 작동모델로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로 변화한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것은 무엇 때문

인가를 규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enoit와 Parker의 연구는 시간경과에 따른 애착양식에서의 높은 안정성 비율과 어머니-할머니, 어머니-영아 및 할머니-어머니-영아 사이의 높은 일치율을 고려할 때, 애착의 계속성과 세대간의 대물림 현상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같은 애착의 대물림 현상은 18개 표본을 사용하여 통합분석을 실시한 Van IJzendoorn(1995)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애착의 대물림 현상에 관심을 갖는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질적 특성이 세대에 걸쳐 전달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있다. Cowan 등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이 유치원 아동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Cowan, Cohn, Cowan & Pearson, 1996). 그들은 아동이 3.5세일 때 AAI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질적 특성을 평정하고 2년 후 아동의 행동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평정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부모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학령전기에 관찰된 부부의 상호작용방식이나 부모역할양식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초등학교에서의 아동의 외재화 행동과 내재화 행동의 강력한 예언자라는 것을 밝혔다. 더욱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아동의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어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아동의 공격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재화 행동(externalizing behavior)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반면,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내적 작동모델은 아동의 철회행동이나 수줍음 혹은 우울행동과 같은 내면화 행동(internalizing behavior)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다.

Cowan 등의 결과는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도 유치원 아동의 정서적 및 사회적 적응을 예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공격성은 주로 남성과 관련된 문제인 반면, 우울증은 여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Cowan 등의 결과는 공격성의 세대간 전달이 아버지-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울증의 세대간 전달은 어머니-딸의 맥락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Cowan 등의 연구는 물론 상기에 개관된 연구들을 통하여 애착의 질적 특성은 시간경과에 따라 그리고 세대에 걸쳐 개인의 적응패턴과 역기능적 패턴 양자의 발달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 애착과 병리적 발달 및 대물림과의 관계

발달심리학적 조망과 정신병리를 연결짓는 최근의 발달정신병리학에서는 정신병리를 정상적 발달경로로 부터의 이탈로 간주하고 개인의 발달적 이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애착의 질적 특성을 논의한다(Overton & Horowitz, 1991). 일찍이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Sroufe(1988)는 이미 불안정한 애착과 문제행동이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을 뿐 아니라 Main과 Solomon(1990)은 보잘 것 없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이고 타인에게 적대감을 나타내는 부모들은 그들의 영아기동안 불안정한-혼란된 애착을 형성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영아기의 혼란된 애착은 아동기의 공격장애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Main, 1996), 불안정한 애착이 병리적 발달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동시에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부모로 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청년기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도 그들이 부모에 대해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을 때 더

적응적이고 더 큰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장휘숙, 1997; Paterson 등, 1995; Armsden & Greenberg, 1987), 불안정한 애착과 병리적 발달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특히 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정서조절과의 관계를 연구한 Kobak과 Sceery (1988)는 애착과 관련된 내적 작동모델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정서조절 방식이 형성되고 표상적 편견이 야기됨으로 애착의 양식에 따라 괴로운 상황이나 도전적 상황에 대처하는 개인의 반응양식이 달라진다고 제안하였다. Kobak과 Sceery에 의하면, AAI에 의해 자율적-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정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고, 보다 낮은 수준의 적대감이나 불안수준을 지니고 있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차이를 보인다. 즉 불안정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집단 중 거부적 집단은 또래들에 의해 높은 수준의 적대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몰두된 집단은 높은 수준의 불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정됨으로써 두 개의 불안정한 집단은 자율적-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집단과는 상이하게 부적절한 정서조절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걸음마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Matas 등(Matas, Arend & Sroufe, 1978)이나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Sroufe(1983)에 의해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어, 불안정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안정된 애착의 소유자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건설적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Kobak과 Sceery의 연구는 애착이론을 정서조절 이론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정되지 못한 애착은 정서조절에 문제를 야기시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괴로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착과 병리적 발달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젊은 여성들의 2-18%와 여자 대학생의 64%가 고통받고 있다고 알려진 섭식

장애(Mintz & Betz, 1988)와 애착과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 Armstrong과 Roth (1989)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섭식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반투사적 검사를 사용하여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측정된 결과, 섭식장애환자들(신경성 식욕감퇴증, 병적섭식과다 및 부정형적 섭식장애)의 96%가 부모에게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Kenny와 Hart(1992)도 섭식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은 부모에 대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애착과 섭식장애와의 관련성은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섭식장애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개별화의 어려움에 기인된다는 종래의 연구결과(Friedlander & Siegel, 1990)와는 상치되는 것으로, 애착이 개인의 섭식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안정성은 섭식행동과 함께 자살행동과도 관련되어 있다. de Jong (1992)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기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부모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애착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우울증후를 갖는 학생이나 정상 집단의 학생들보다 아동기에 어머니나 아버지를 정서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고 유의하게 더 많이 보고함으로써 인생초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살기도의 가능성을 예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de Jong의 연구는 애착인물로서의 부모나 유의미한 타인들이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활용가능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이나 이 시기 대학생들의 심리적 취약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e Jong이 정상집단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자살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임상집단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의 질적 특성과 자살행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Adam 등(Adam, Sheldon-Keller & West, 1996)도 de Jong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자살행동을 무반응적이거나 활용불가능한 애착인물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정의하고 극단적인 애착행동이 곧 자살행동으로 표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 중 자살기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13-19세) 환자의 86%와 자살기도의 전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 환자의 78%가 애착관련적 외상경험을 지니고 있어 자살기도 집단이 다소 더 많은 애착관련적 외상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 현저한 차이는 자살기도 집단의 청소년들이 유의하게 더 많은 미해결의-혼란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해결의-혼란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몰두된 애착양식의 경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자살기도집단에 우세하게 나타나고 자살기도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 환자 집단에서는 거부적 애착양식의 경향성이 우세하게 나타남으로써 애착의 질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병리적 특성이 야기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성인애착면접에 의해 몰두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정신병적 증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Kobak과 Sceery(1988)에 의해서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 또한 Kobak 등(Kobak, Sudler & Gamble, 1991)도 10대 청소년들의 자기보고된 우울은 불안정한 애착 중 몰두된 애착과 연합되어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Dozier(1990)는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에도 안정되지 못한 애착은 정서장애와 관련되어 있고 특히 몰두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환자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병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몰두된 애착과 정신병리와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애착양식과 MMPI-2의 관계를 연구한 Pianta 등(Pianta, Egeland & Adam, 1996)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이 연구에 포함된, 첫아이를 임신한 상태에 있는 여성들은 아동기에서의 학대와 무시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가정폭력과 혼란된 생활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임신중에 MMPI-2를 검사받았고 출산후 영아가 19개월이

되었을 때 AAI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몰두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은 회귀척도에서 자율적-안정된 집단이나 거부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자신이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괴로움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타인의 동정과 관심을 얻으려는 욕구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몰두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은 반사회적 성 척도, 편집증 척도, 정신분열증 척도에서 자율적-안정된 집단이나 거부적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어 몰두된 애착과 병리적 특성이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의 몰두된 애착양식과 유사한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도 안정된 애착양식이나 회피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기력과 불안을 나타내고(Rubin & Lollis, 1988) 이와 동일한 결과가 대학생 표본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Kobak & Sceery, 1988),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청소년들(13세부터 19세까지)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연구한 Rosenstein과 Horowitz(1996)는 몰두된 애착은 물론 거부적 애착도 정신병리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AAI를 사용하여 청소년 환자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을 측정 한 결과, 몰두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정서장애, 강박관념-강박행동장애, 경계선적 성격장애 혹은 정신분열증적 성격장애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거부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행동장애나 약물남용장애, 자기애적 혹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및 편집증적 성격장애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어 대조를 이루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아동기의 회피적 애착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파괴적 행동과 연결되어 있고(Speltz 등, 1991)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은 영아와 걸음마장이의 사회적 철회(Rubin & Lollis, 1988;1)나 고독(Berlin, Cassidy & Belsky, 1991)과 연합되어 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부적 애착은 몰두된 애착과는 유형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정신병리와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정상집단의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착양식과 MMPI-1으로 측정된 정신병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장휘숙(1998a)도 MMPI-1의 세가지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임상척도에서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한/양가적 애착양식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거부적 집단과 몰두된 집단은,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병리적 증상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두 집단 모두 정신병리적 경향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Rosenstein과 Horowitz의 연구의 중요성은 비임상적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Cowan 등, 1996; Benoit & Parker, 1994; Fonagy 등, 1991)과 일치되게 임상집단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유사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어 임상집단에서도 애착의 대물림 현상의 가능성이 발견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청소년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AAI를 실시하고 애착의 3범주 체계에서 청소년과 어머니의 일치율이 81%에 이른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안정되지 못한 애착도 세대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Rosenstein과 Horowitz의 결과는 개인의 적응이나 방어적 편견은 어머니를 통하여 아동에게 전달된다는 Bowlby(1973)의 주장을 입증할 뿐아니라 2-4세의 문제있는 아동이나(Crowell & Feldman, 1989) 외재화 문제를 갖는 학령전기 아동들(DeKlyen, 1992) 중에서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들이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안정성은 영아에서의 다양한 임상적 문제의 발달을 차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안정되지 못한 애착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애착과 병리적 증상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있다. Roberts 등(Roberts, Gotlib & Kassel, 1996)은 성인의 안정되지 못한 애착이 다양한 형태

의 심리적 괴로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풍부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변인 사이의 연합의 기초가 되는 매커니즘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애착과 우울증후 사이의 매개변인을 연구하였다. Hazan과 Shaver가 구성한 단일문항의 애착질문지를 사용하여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을 측정한 연구자들은 애착과 관련된 성인들의 내적 작동모델은 우울증후군 변량의 단지 12% 정도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안정되지 못한 애착은 우울증후군과 연합되어 있으나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양식만이 우울증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애착과 우울증후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을 가정하고 세개의 동시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우울증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역기능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즉 애착의 불안정성은 역기능적 태도와 연합되고 그것은 다시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저하시키며 결국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증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인생초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은 오랜 시간이 경과된 이후의 개인적 특성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Roberts 등의 연구와 유사하게 애착과 MMPI-1의 하위척도들 중 정신증 척도인 편집증 척도, 강박증 척도 및 정신분열증 척도의 관계를 공변량구조 분석을 통하여 연구한 장휘숙(1998b)의 연구에서도 매개변인의 역할이 확인될 수 있었다. 장휘숙은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도 Roberts 등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애착이 정신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아상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기관련적 변인을 경유하여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론변인들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보다 나은 변인들간의 관계구조를 찾아내기 위

하여 전반적인 모형에 관한 지수와 세부적 지수를 함께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의 정신증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정도는 정신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아상을 경유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여자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낮은 애착은 개인의 자아상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다시 개인의 정신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아상은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를 매개하는 소위 매개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장휘숙(1998c)이 연구한 애착과 희망의 관계에서는 애착-자아상-자아존중감-희망의 경로가 발견됨으로써 애착과 결과변인들 사이에 다양한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휘숙은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단일차원적인 평가적 구성개념인 반면, 자아상은 자신에 대한 여러 측면의 특성을 포함하는 중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증의 발병에는 자신에 대한 중다차원적 특성인 자아상이 자신에 대한 평가적 특성인 자아존중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Roberts 등의 연구와 장휘숙의 연구를 종합하면, 각 개인은 영아기의 애착역사를 바탕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기대나 표상에 해당하는 내적 작동모형을 형성할 것이므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적 작동모형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신념이나 자아상 혹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기관련적 개념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기관련적 개념들 중 어떤 변인이 애착과 병리적 발달 사이를 매개하는가는 결과변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애착과 다양한 정신병리를 연결하는 매커니즘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흥미롭게도 앞서 논의된 Cowan 등(1996)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형과 아동의 외재화 및 내면화 행동의 관계가 부부관계의 질적 특성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매개변인들의 역할이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하여 지난 10년동안(1980년대 후반 이후로) 영아기 특유의 발달적 현상으로 인식되었던 애착이 전생애동안의 관계 형성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owlby(1969)의 주장대로, 부모가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형에 의해 애착의 질적 특성이 부모에서 자녀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제시될 수 있었다. 더욱이 개인의 임상적 장애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발달적 조망을 통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발달정신병리학자들은 불안정한 애착과 다양한 병리적 특성들이 연합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애착이 병리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애착의 질적 특성이 발달적 이탈 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착은 임상장애의 원인과 진단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다. 이제 애착은 순수 발달심리학자들은 물론 발달적 조망에서 부적응적 행동의 기원과 과정에 관심을 갖는 발달정신병리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연구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논문에서 논의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횡단연구로 이루어져 있고 3-4편의 종단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한정되어 있어 (Kenny, 1987; Ward & Carlson, 1995; Benoit & Parker, 1994) 전생애동안의 애착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 개인의 일생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뿐 아니라 중다차원적 사건들이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연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이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미 Kobak과 Hazan (1991)은 Piaget의 인지구조이론을 바탕으로 애착의 질적 특성에서의 변화를 가정한 바 있기 때문에, 애착의 계속성 여부는 물론 그에 따른 애착의 세대간 전달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세대에 걸친 애착의 대물림 현상을 연구한 Benoit와 Parker의 연구에서 할머니보다 어머니들에서 그리고 어머니보다 영아들에서 안정된 애착의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형성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유의한 변화없이 성인기 이후까지 계속될 수 있고 다음 세대로 대물림될 수 있는가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종단적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애착의 계속성 여부나 대물림 현상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해당하는 현재의 애착양식을 측정하고 회고적으로 조사된 애착역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는 물론 다음 세대까지 계속될 수 있는 종단연구를 수행하는 일일 것이다.

종단연구의 수행과 함께 애착의 질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애착척도의 개발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인애착면접(AAI)과 영아의 낯선 상황절차가 과연 동일한 애착차원을 측정하고 있으며 Hazan과 Shaver의 범주척도와는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만, 애착의 계속성과 대물림 현상에 대해 타당성있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애착에 관한 발달심리학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또 다른 문제는 애착과 후속적 발달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논의한 대로 역기능적 태도와 낮은 자아존중감은 애착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고 (Robert 등, 1996) 자아상은 애착과 정신증 사이를 매개하며(장휘숙, 1998b) 그리고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은 애착과 희망 사이를 매개한다(장휘숙, 1998c)는 것이 밝혀졌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고려해볼 때, 인생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오랜 시간이 경과된 이후의 성인기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애

착은 오히려 인생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자아상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기관련적 개념에 먼저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애착의 질적 특성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자기관련적 개념은 다시 시간적으로 이후에 형성되는 희망이나 우울 혹은 정신증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애착과 결과변인들 사이에 매개변인을 가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청년기나 성인기에 나타나는 행동장애나 다양한 심리적 장애와 애착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장애행동의 원인과 그것의 진행과정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발달정신병리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은 정신장애의 평정과 분류 그리고 처치에 애착이론을 적용하여 애착과 장애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와같이 임상분야에 발달모델을 적용하는 발달정신병리학은 임상심리학이나 정신의학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발달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정상발달에만 관심을 갖는 한국의 발달심리학자들이 그들의 관심을 심리적 장애의 발달과 그것의 교정을 위한 노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발달정신병리학의 출현 자체가 임상심리학이나 임상심리학만으로는 정신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달심리학자들은 발달연구의 결과를 심리학의 다른 분야나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임상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영아기 이후의 사회적 및 정서적 능력의 발달과 연합되어 있는 인생초기의 애착은 성장한 이후의 다양한 발달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었다. 물론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이 이후의 경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인생초기에 형성된 안정성(security)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발달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Kobak & Sceery, 1988),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은 건 강한 발달을 위한 전제조건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장기간의 종단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면,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심리적 괴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어(Hammen, Burge, Daley, Davila, Paley & Rudolph, 1995; Milkunicer, Florian & Weller, 1993) 개인의 적응과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할 것이다. 특히 애착의 대물림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비교적 안정되고 탄력적인(resilient)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인들은, 아동기에 지원적인 부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성장하여 부모가 될 때 그들은 부모로서 그들의 자녀에게 자율성을 허용하고 탐색을 격려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애착과 성인기 이후의 정상적 혹은 병리적 발달과의 관련여부는 물론 다양한 매개변인들의 역할이 보다 장기적인 종단연구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을 때,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이 전생애동안 계속되고 더 나아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장휘숙(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 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제4권, 1호, 88-106.
- 장휘숙(1998a). 청소년의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의 관계. **미발표**.
- 장휘숙(1998b).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 자기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1권, 제1호, 110-121.
- 장휘숙(1998c). 애착과 희망의 관계에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의 중재역할.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제5권 1호, 117-137.
- Adam, K. S., Sheldon-Keller, A. E., & West, M. (1996). Attachment organization and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in clinic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64-272.
- Ainsworth, M. D. S. (1967). *Infancy in Uganda: Infant care and the growth of lov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Vol. 44, No. 4, 709-716.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427-454.
- Armstrong, J., & Roth, D. M. (1989). Attachment and separation difficulties in eating disorder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8, 141-155.
- Benoit, D., & Parker, K. C. H.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 Berlin, L. J., Cassidy, J., & Belsky, J. (1991). Loneliness in young children and infant-mother attachment. *Unpublished manuscrip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8, No. 5, 759-775.
- Carlson, E. Q. (1990). Individual differences in quality of attachment organization of high risk adolescent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Cicchetti, D., Toth, S. L., & Lynch, M. (1994). Bowlby's dream comes full circle: The ap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to risk and psychopathology. In T. Ollendick & R. Prinz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7 pp. 1-75). New York: Plenum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No. 4, 644-663.
-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Pearson, J. L. (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1, 53-63.
- Crowell, J. A., & Feldman, S. S. (1989). Mothers'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mother and child behavior during separation and reun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 597-605.
- DeKlyen, M. (1992). Childhood psychopathology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the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A comparison of normal and clinic-referred disruptive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de Jong, M. L. (1992). Attachment, individuation, and risk of suicide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1, No. 3, 357-373.
- Dozier, M. (1990). Attachment organization and treatment use for adults with seriou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7-60.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8, No. 2, 281-291.
-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Friedlander, M., & Siegel, S. (1990). Separation-individuation difficulties and cognitive-behavioral indicators of eating disorders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74-78.
- Grossman, K., Fremmer-Bombik, E., Rudolph, J., & Grossmann, K. E. (1988).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as related to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maternal care during the first year. In R. A.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Mutual influences*(pp. 241-260). Oxford: Clarendon.
- Hammen, C. L., Burge, D., Daley, S. E.,

- Davila, J., Paley, B., & Rudolph, K. D. (1995). Interpersonal attachment cognitions and prediction of symptomatic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436-443.
- Hazan, C., & Hutt, M. J. (1990). Continuity and change in inner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Presented at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Relationships*. Oxford, England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No. 3, 511-524.
- Hesse, E. (1996). Discourse, memory and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 note with emphasis on the emerging Cannot Classify categor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7, 4-11.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1, 17-29.
- Kenny, M. E., & Hart, K. (1992).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eating disorders in an inpatient and a colleg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9, No. 4, 521-526.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6, No. 3, 502-512.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0, No. 6, 861-869.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bak, R. R., Sudler, N., & Gamble, W. (1991).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athways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461-474.
- Lyons-Ruth, K. (1996). Attachment relationships among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The role of disorganized early attachment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64-73.
- Main, M. (199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2. Overview of the field of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37-243.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 66-104).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 Main, M. & Solomon, J.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Preschool Years* (pp. 121-160).

-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S. (1978). Continuity and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3, No. 1, 1-18.
- Mikulincer, M., Floria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17-826.
- Mintz, L. B., & Betz, N. E. (1988).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eating disordered behaviors among undergraduat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63-471.
- Overton, W. F., & Horowitz, H. A. (1991).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tegrations and differentiations. In D. Cicchetti & S. L. Toth(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3, Models and integrations* (pp. 1-42).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3, No. 5, 579-600.
- Paterson, J. E.,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4, No. 3, 365-376.
- Pianta, R. R., Egeland, B., & Adam, E. K. (1996).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self-reported psychiatric symptomatology as assessed by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73-281.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310-320.
-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44-253.
- Rubin, K. H., & Lollis, S. P. (1988). Origins and consequences of social withdrawal. In J. Belsky & T. Nezworski(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219-252), Hillsdale: NJ: Erlbaum.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 No. 5, 971-980.
- Speltz, M. L., Greenberg, M. T., & DeKlyen, M. (1991). Attachment in preschoolers with disruptive behavior: A comparison of clinic-referred and nonproblem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muter (Ed.),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Vol. 16, pp. 41-81). Hillsdale, NJ: Erlbaum.
- Sroufe, L. S. (1988).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pp. 18-38), Hillsdale, NJ: Erlbaum.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Van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 (1996).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fathers, adolescents, and clinical groups: A meta-analytic search for normative dat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8-21.
- Ward, M. J., & Carlson, E. A.(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 69-79.

## **Life-span Model of Attachment and The Transmission across Generations: The Review of Attachment Studies in the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rticles proving Bowlby's claims that the attachments to caregiver in infancy are continued throughout one's life as a internal working model and transmitted to one's descendants. In addition, the articles reporting insecure attachments influence to the pathological development and transmitted to one's offspring through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ttachment, are also included in this review. By this review, it was able to be confirmed that the attachment is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theme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s well as in developmental psychology.